

시론



김 선 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아침저녁으로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한낮의 햇살에는 아직 여름의 온기가 남아 있지만, 새벽 창을 열면 어느새 서늘한 기운이 스며든다. 계절은 큰 소리 없이 제 자리를 바꾼다. 들녘의 벼도 푸른빛을 거두고 조금씩 황금빛으로 물들어 간다. 여름 내내 하늘을 향해 서 있던 벼는 알곡이 차오를수록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벼어 있을 때는 꽃꽂웠으나 속이 차자 몸을 낮춘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한다. 익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낮아지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더 많이 배우고 소유하며 인정받는 것을 성장이라 여겼다. 남보다 앞서야 안심했고 이름이 빛나야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을 건너오며 알게 되는 것이 있다. 높이 오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많이 갖는 것보다 귀한 일은 가까이 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성숙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무도 열매 하나를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견딘다. 봄날의 꽃이 아름답다고 모두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뜨거운 햇볕과 거센 비바람을 지나고 때로는 가지를 내어주면서

익어간다는 것은 낮아지는 일이다

도 묵묵히 제 몫의 계절을 살아낸 끝에 비로소 결실을 품는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날, 가슴 아픈 이별, 말없이 삼켜야 했던 눈물과 기다림이 보이지 않는 생의 나이트를 만든다.

젊은 날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을 힘줘 말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용기라 여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세상에는 하나의 잣대로 헤아릴 수 없는 사연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옳은 말을 건네는 것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고, 충고보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를 판단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시간을 헤아려보는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깊어진 사람에게서는 목소리보다 온기가 먼저 전해진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자리를 살피고, 앞에 서기보다 다른 이가 걸어올 수 있도록 한 걸음 비켜선다. 지식으로 타인을 작게 만들지 않으며,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이의 선택을 쉽게 재단하지 않는다. 세월이 남겨야 할 것은 얼굴에 새겨진 주름의 숫자가 아니라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내면의 너비가 아닐까.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성숙이 필요하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많이를 향해 달리는 동안 곁에 있는 이의 표정을 놓치지 않는지 돌아볼 일이다. 앞선 이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회도 필요하지만 뒤처진 이의 걸음을 기다려주는 공동체는 더욱 귀하다. 힘을 가진 이가 자세를 낮추고, 많이 배운 이가 모르는 이의 질문을 존중하며, 넉넉한 이가 자신

의 몫을 나눌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가을 들판에는 서두름이 없다. 먼저 익었다고 뽐내는 벼도, 늦게 여문다고 부끄러워하는 열매도 없다. 제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햇빛과 비를 견디며 제때의 빛깔을 얻는다.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계절이 있다. 꽃피는 때가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도 같지 않다. 그러나 다른 이의 시간과 견주느라 자신의 온늘을 초조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느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또 한 번의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얻은 것보다 놓친 것이 먼저 떠오르고, 이뤄놓은 것보다 부족할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은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만 아름다운 계절은 아니다. 불필요한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오래 품었던 마음을 풀어내며, 고마운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귀한 결실이다.

들녘의 벼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것은 패배의 몸짓이 아니다. 뜨거운 별과 비바람을 견디며 제 안을 충만하게 채운 존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겸허한 자세다.

우리도 그렇게 익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세월이 흐를수록 목소리는 낮아지고 시선은 따뜻해지며,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잠시 기대어 설 수 있는 그늘 같은 사람으로.

가을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지나며 가져쳐준다. 가장 잘 익은 열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듯, 사람도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마음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社說

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 주민투표 파격 지원에 달려

전남광주특별자치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공식 선정되면서 지원사업 구체화를 위한 실무 논의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소독 증대,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주민생활지원 등 분야별로 분류해 9월까지 세부 목록과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특별시가 약속한 1조원의 지원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에 기부 대 양여에 따른 6천400억원과 시비 2천500억, 국비 2천100억원으로 합산했으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군공항으로 낙점되면서 재원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장기간 표류한 국책사업이다. 옛 광주시가 2014년 건의서를 제출한지 12년 만에 분궤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방부와 특별시는 과감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공감대를 더 넓히고 주민 투표라는 큰 산을 넘어서야 한다. 국방부도 특히 후속 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 지역발전을 위한 '1조원+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유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규모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혜택도 언급했

다.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난 4월 초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이해당사자인 무안군의 불참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과 1조원 지원,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 이행을 계속 요구했던 것이다. 수용성 확보가 최대 변수다. 이를 위해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 등 피부적으로 제갈할 수 있어야 한다.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정부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누차 역설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탔다. 역사적 전적으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주변지역 자원계획 확정, 주민 투표, 지자체 유치 신청 등이 예정돼 있다. 특별시는 연내 불가역적 결론에 도달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투명하게 진행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파빌리온 논란 광주비엔날레 전면 개혁 요구에 직면

우리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번 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중국과 대만의 정치·외교적 갈등에 휩싸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파빌리온과 관련해 광주비엔날레와 참여기관 간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불씨는 남았다.

특별시는 협의 절차상 미비점을 포함해 준비과정의 차질을 철저히 조사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사안은 (재)광주비엔날레가 국립대만미술관의 공식명칭을 영어 약자 'NTMoFA'로 사용해 대만 문화부의 합의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지역 예술단체들은 자율적인 창작 활동의 제약이라고 비판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간 대여에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어 파장이 확산됐다.

급기가 재단이 고수해온 입장을 철회하고 대만관을 승인한 직후엔 중국 측이 반발하면서 사태는 더 꼬였다. 다이빙 주한 대사가 특별시 광주시청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했고 전시 철수로 이어졌다. 지난 2002년 브라질 상파울루비엔날레에서도 빚어진 일이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

으나 피해가지 못했다. 행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민형배 시장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예술의 영역에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질타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비엔날레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예술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국제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올해도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예술적 실천을 통해 삶의 새로운 역량과 형태가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탐구한다. 핵심적인 제안은 '변화는 실천을 통해 지속된다'는 것이다. 광주를 단순한 전시 개최지가 아니라 예술과 집단적 행동, 정치적 변혁이 때어놓을 수 없이 연결된 공간으로 바라본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세계 굴지의 메가 축제로 성장했다. 재단은 동시대의 미술, 나아가 문화에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본연의 철학과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바탕 흥역을 치르면서 흥행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특별시 의도대로 파빌리온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전남광주의 위상, 비엔날레의 명성에 오점으로 기록될 게다.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 개선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의 요구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고



박 옹 희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가 국토 서남권 전남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광주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확정하고, 반도체 앵커기업과 함께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다. 지난 7월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를 광주군공항으로 확정하 데 이어 8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의 투자를 위촉시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부자·전력·용수·인허가는 정부가 책임지고 세제·금융·인재는 특별법이 뒷받침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가 가동된 것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성장 거점을 세우는 국가 균형성장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부와 기업의 약속도 서로 마주쳐야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의 화답이다. 지원과 투자는 어느 한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허가를 앞당기고 기반시설을 서둘러도 기업의 투자결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정부와 전남광주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만큼, 앵커기업도 두 가지 약속으로 신뢰를 채워야 한다.

전남광주 반도체 도시 실현, 앵커기업 화답할 때

첫째, 반도체 공장(Fab)의 투자·생산의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해 발표해야 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의 전력과 하루 6만t의 용수가 필요하다고 추산되지만, 이 수치는 뿔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이 착공 시점과 양산 개시 시기, 생산 품목과 규모, 직군·학력별 인력 수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동반입주 계획 등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정부와 전남광주도 변전소와 도수관로를 언제까지 지어야 할지, 배후단지과 인재 양성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앵커기업의 로드맵 공유는 과잉·과소 투자 위험을 줄이고 부가가치의 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기반시설 준비의 기준점이자, 투자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출발점이다.

둘째, 앵커기업의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해 제2본사급 거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제2본사(Secondary Headquarter)와 기업형 첨단 도시 구상을 포함해 지방 거점을 단순한 공장이나 '기업의 제2본사'로 키우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 공장만 들어서면 성과는 한 기업의 생산라인에 갇히지만, 연구개발 기능과 지역법인이 함께 뿌리내리면 좋은 일자리와 세수, 협력업체 생태계가 지역에 결합된 복합타운으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앵커기업의 제2본사 같은 지역 법인과 및 연구개발센터 병설은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정부가 지향하는 상생협력 투자 성과의 지역 확산 목표와 기업 투자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접점이 될 수 있다. 제2본사를 세우는 기업일수록 메가

특구특별법 등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 등 패키지 지원을 더 크게 누리는 구조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기업에 집을 지우는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게도 지역 밀착 경영, 인력 확보 등 안정적 협력망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를 더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좋은 본보기도 가까이 있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에 뿌리를 둔 지역법인으로 세워져 의사결정과 고용, 세수가 지역에 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도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JASM 구마모토 사례에서 공장과 함께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본사가 출자한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앵커기업의 로드맵 발표가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라면, 제2본사급 신설은 그 성과를 어디에 뿌리내릴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로드맵과 제2본사가 함께 갈 때, 호남권은 하나의 공장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과 연구·경영 기능까지 품은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갖추게 된다. 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기업의 명확한 화답이 맞물릴 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표의 약속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세우는 성장 거점으로 현실이 될 것이다.

민·관이 함께 짓고, 함께 키우고, 함께 누리는 전남광주 반도체 도시, 지금이 바로 그 접점을 만들 적기다. 정부가 길을 열고, 전남광주가 터를 다지며,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기업이 뿌리를 내릴 기회가 왔다. 반도체 앵커기업이 빠른 의사결정으로 화답하고 셋의 걸음이 하나로 맞물릴 때,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독자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궁'하는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심한 경우 보복이나 폭언·폭행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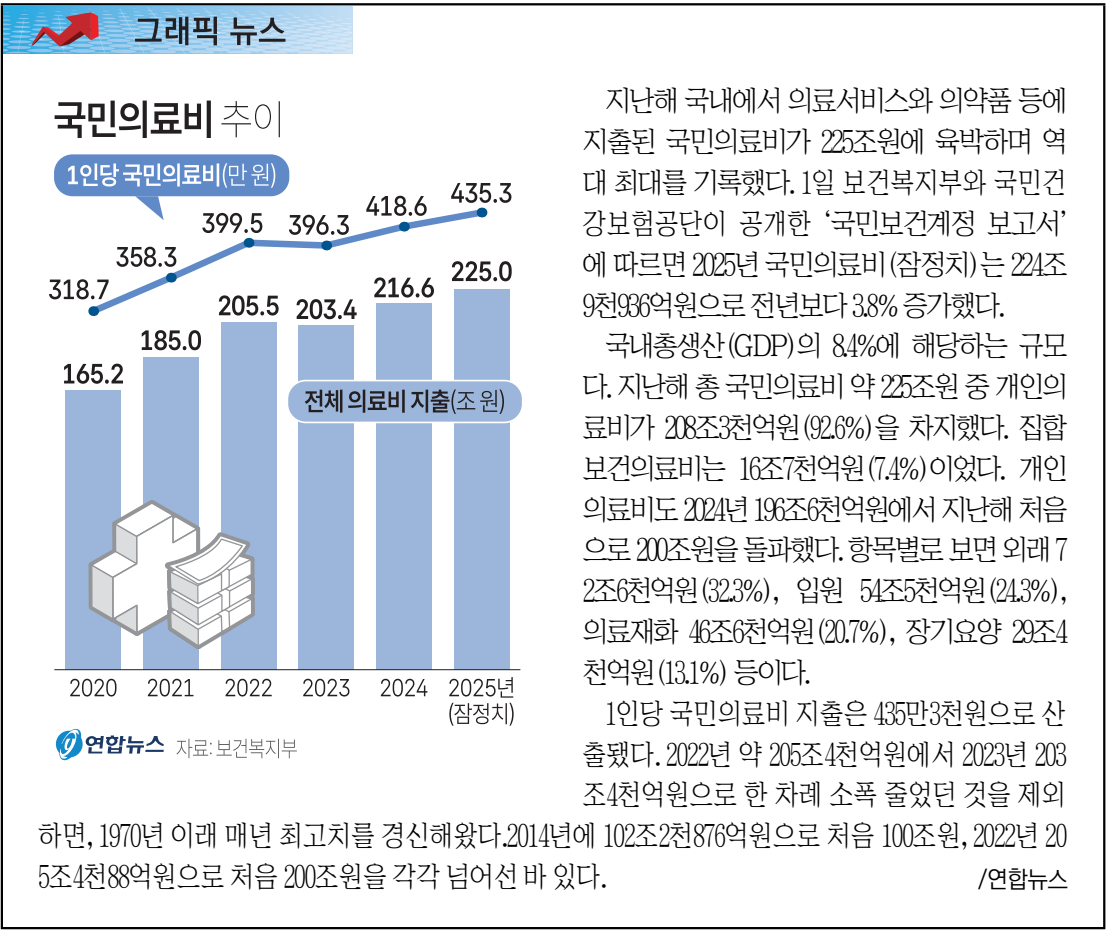
음'으로 나뉜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하기보다 먼저 관리 주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악기·라디오·TV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으로 범칙금 처벌받을 수 있

다. 또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엔 스톱강 범죄에 해당된다.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이웃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과 올바른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지혜가 평온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 것이다. <조은지·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사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